

인간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견해와 그 제한성

정 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인간철학은 발생한지도 오래고 또 여러가지 류파가 있지만 그것들은 다 순수 인간문제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인간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하고 주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문제를 론하는 하나의 인생철학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6권 138~139페이지)

인간철학은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하고 주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문제를 론의하는 인생철학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철학의 제창자로 알려져있다.

그 리유는 우선 그가 철학이 세계가 아니라 인간을 연구할것을 주장하였기때문이다.

그는 당시 존재와 운동문제에 대하여 론의하던 철학을 비판하면서 철학이 인간문제를 연구할것을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윤리적인 문제에 종사하고 자연전체에 대해서는 무엇하나 취급하지 않았다고 되어있다. 플라톤의 작품인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연에 대하여 《그러한것에 대하여 자신은 크게나 작게나 지식을 가지지 않는다.》,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세노폰도 소크라테스는 우주가 어떻게 하여 생기고 하늘의 각각의것들이 어떠한 필연에 의하여 생기는가를 말한 대다수가 행하고있는 방식으로 만물의 본성에 대하여 론의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그러한 일에 동반하는자들을 비판하고 그자신은 언제나 경건이란 무엇인가, 미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절제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고 문답하고있다고 서술하고있다.(《소크라테스생각나기》)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다른 대다수가 행하고있는 방식으로》 자연학적문제에 기울어지지 않으려 한것은 왜서인가.

이에 대하여 크세노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당시 자연학자들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① 그들은 인간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인간계를 초월한 사상의 세계에 달리고있는가, 또 대체 인간의 일을 내버리고 신적인 사상을 연구하는것이 인간에게 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있는가, ② 인간으로서 그렇게 말할 사정을 발견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것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사실 그러한것에 대하여 말하는것에서 다대한 자부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은 서로 일치하지 않지 않는가, ③ 신적인 사상이 어떠한 필연에 의하여 생기는가를 배우면 그에 의하여 바람과 비, 계절을 뜻대로 생기게 한다는것일가 혹은 오직 그들의 원인을 아는것만으로 만족하는가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관심을 오직 인간, 인간의 생에 두고 그것을 초월한것은

불가지적인것으로 보고 그에 의하여 지식에 대한 사랑(철학)을 제한하려고 하고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크라테스의 주되는 문제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신을 시인하고있는 그에게 있어서 신의 창조물인 자연에 대한 명백한 지식은 인간으로서는 가질수 없는것이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긴절한것은 그자신에 대한 지식이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철학이 자연, 세계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인간, 인생에 대한 탐구으로 지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그리스의 사정으로부터 볼 때 인간을 탐구할데 대한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것이였다.

철학은 세계와 함께 인간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그리스철학은 인간이 아니라 세계에 관한 론의에만 몰두하였다. 그는 이 점을 보고 철학이 인간을 연구할것을 주장하였다. 자기가 아니라 대상이 먼저 탐구되는것은 인식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론의는 인식발전의 합법칙성에 부합되는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서 문제성은 본바와 같이 세계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고 순수 인간연구에만 지향한데 있다. 즉 세계와 동떨어진 인간탐구를 지향한데 그의 철학의 약점이 있는것이다.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은 인간을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론할 때에만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철학의 제창자로 불리우는 리유의 다른 하나는 그가 《지덕동일》, 《복덕동일》을 주장하여 이른바 인간다운 생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한데 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것은 그가 인간을 정신적, 윤리적존재로 본 사정과 관련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의것을 자기(령혼, 정신)에 종속시키며 살아야 하며 독단과 편견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보편적선을 알고 그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

독단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지키는 생활이 어떻게 하여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주는것이 《지덕동일》, 《복덕동일》설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진리, 보편적선을 인식할수 있으며 따라서 보편적인 도덕적판단의 객관적기준을 가질수 있다.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것은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때문이다. 선을 알면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행동할것이다. 왜냐면 선이란 사람에게 좋은것, 리로운것이기때문이다.

보편적리성에 기초한 참된 지식이 곧 덕행이며 덕행은 지식의 특수한 표현이다.

인간의 덕행에는 절제, 용기, 정의가 있는데 그 바탕에는 지식이라는 보편적원리가 관통되어있다.

기마전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은 승마술을 잘 알고있으며 또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조금도 무서워하는 일이 없이 물을 맞받아나갈수 있게 되자면 수영술을 잘 알아야 한다. 수영술에 대하여 모르면서 노호처럼 성나 파도치는 강에 뛰어드는것은 참다운 용기라고 할수 없으며 오히려 무분별한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람의 의지에 대한 유일한 결정자는 지식이며 덕은 사람들에게 배워줄수 있는것이다. 덕이 만일 지식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배워줄수 없다.

지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다.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다른것으로부터 식견을 가질수 없다. 자기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세심이 나오고 절제는 선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생긴다. 공정은 합법과 동일시되는데 합법이란 국법에 따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만민이 지켜야 할 불문의 법에 따른다는것이다.

그에 의하면 선은 좋은것, 리로운것이다. 따라서 선한 사람, 덕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

지식과 덕행이 합치되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런 의미에서 덕을 쌓는다는것과 행복하다는것은 별개의것이 아니며 지식, 덕행, 행복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지덕동일》, 《복덕동일》을 설교한 그의 견해는 사실 참다운 인생과는 무관한 그릇된것이다.

사실상 지식자가 곧 인격자가 아니며 인격자가 곧 지식자도 아니다. 그런것만큼 《지덕동일》이란 그릇된것이다.

《복덕동일》도 같다. 행복의 조건이 도덕적인간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덕있는자가 반드시 행복한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보편적선이란 계급사회에서는 성립도 될수 없는것이다. 더우기 그는 도덕성은 선발된 인간인 노예주들만이 지닐수 있으며 지식으로 풀수 없는 난문제에 부딪치면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한심한 주장까지도 하였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을 정신윤리적존재로 보고 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찾으려 한것이 당시로서는 얼마간 일리가 있는것이였다고 할수 있으나 그것은 그 기초가 잘못 설정된 초계급적인 론의로서 참다운 인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것이였다.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탐구를 주장하고 값있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론한것으로 하여 인간철학의 시조로 되였다. 그러나 그의 인간탐구는 세계에 대한 론의와 동떨어진것으로서 순수 인간탐구에 지향된것이였으며 값있는 인생에 대한 설교는 그 기초로부터 잘못된 초계급적인것으로서 그릇된것이였다.

오늘날 현대부르조아철학자들은 고대에 출현한 인간철학을 개악하여 지난 시기 제기된 《합리적인》면마저 거세하여 극히 반동적인 철학을 설교하고있다.

서양에서 인간철학의 제창자로 알려지고있는 소크라테스의 인간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가지문제에 귀착된다고 할수 있다.

우선 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잊고 살고있다. 즉 사람들은 참된 자기(령혼)와 자기의것(재산, 권력, 명예)이 별개의것이라는것을 모르고 자기를 자기의것에 종속시켜 살아가고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의 본질을 정신적인것에서 찾으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재산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여 동분서주하며 살고있는데 이것은 인생에서 목적과 수단을 전도시키고있는 한심한 행위라고 보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인생에서 목적과 수단을 헛갈리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한 그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왜냐면 생활에서 그러한 현상은 자주 목격할수 있는것이다.

물론 인간은 인생에서 목적과 수단을 헛갈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그가 정신, 지식을 인간의 《목적》으로 놓고있는것이다.

그는 령혼 즉 정신을 참된 자기로 봄으로써 인간의 인간다움을 그에서 찾고 그것을 지키는 생활을 할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인간의 인간다움을 정신적면에서 찾은것은 인간과 자연적존재의 다른 면을 강조한것으로서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정신에서 지식의 면을 절대시하였다. 이것은 그의 《지덕동일》설을 통하여 엿볼수 있다. 그에 의하면 참된 지식이 곧 덕행이며 덕행은 지식의 특수한 표현이다. 인간의 덕행에는 절제, 용기, 정의가 있는데 그 바탕에는 지식이라는 보편적원리가 관통되어있다. 인간은 알아야만 절제있고, 용기있고, 정의로울수 있다.

이것은 그가 지식이자 도덕으로 보았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하여 곧 도덕이 있다고는 할수 없다. 사실 도덕을 규제하는것은 지식이라기보다 사상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강조할 때 정신적면이 강조되어야 하는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사상이다. 사상은 사람의 활동에서 결정적작용을 한다.

사상은 인간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인간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사상의식의 적극적인 작용은 우선 사람들의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는데서 나타난다.

그것은 인간의 활동에서 결정적동기로 되는것이 사람들의 생활상요구와 리해관계이기때문이다. 인간의 활동을 산생시키는 동기가운데서 생활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동기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사실상 이에 귀착되는것이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개인적, 계급적, 민족적, 국가적리해관계를 초월한 행위란 없다.

사상의식의 적극적인 작용은 또한 지식이나 감정, 의지와 같은 의식형태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규제하는데서 나타난다.

지식은 진보적인 사상의식과 결합될 때에만 인간의 활동을 추동하는 진정한 힘으로 될수 있다. 지식은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의식이다. 그러기에 지식은 사람의 활동이 대상의 특성과 그 변화발전의 법칙에 맞게 진행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지식자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것으로서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직접 반영하지는 않는다.

과학지식을 획득하는 목적과 얻어진 지식의 리용방향을 규정하는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이다. 아무리 심오하고 풍부한 과학지식이라 하더라도 진보적인 사상의식과 결합되지 못할 때에는 사회적진보와 인민의 복리증진에 실제적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수도 있다.

감정인 경우에도 그 바탕에는 사상의식에 의하여 좌우되는 욕망과 사회적욕구가 놓여있다. 감정은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로 반영되는 심리현상이다. 감정은 기쁨과 만족, 사랑과 증오, 자책감 등의 주관적체험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감정은 객관적사물현상들의 속성, 련관을 반영하는 지식과는 달리 인간의 욕망과 대상과의 관계를 반영한다.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대상은 기쁨과 만족,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에 반대되는것은 불만과 증오, 불쾌감을 일으킨다. 이처럼 감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상의식에서 기본인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의지도 사상의식과 밀접히 결합되어있다. 물론 의지 그자체가 인간의 활동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된다. 그러나 사상의식과 결합되지 않은 의지는 맹목성을 면할수 없다. 의지는 오직 인간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과 결합될 때에만 인간의 사회적활동을 규제하는 의식적요인으로 될수 있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독단과 편견》에 만족해하는 동물이다. 즉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동경하여마지 않는 인간적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판단에 기초한 자기식생활에서 만족을 찾고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독단과 편견》에 사로잡힌 생활로써는 인간다운 참생활을 즐길수 없다고 보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사회적성격을 보고있는 그의 주장에 일리는 있다. 왜냐면 개인적리해관계판단에 기초한 자기식의 생활로써는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인간다운 만족을 느낄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이다. 소크라테스는 《지덕동일》과 함께 《복덕동일》을 설교함으로써 도덕적생활이자 행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생활에서 인간이 느끼는 만족이 곧 행복인것이다. 물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도덕적생활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행복이 이루어지는것만은 아니다. 도덕이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행동규범이라면 행복은 인간의 사회적본성 실현에 있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행복은 사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인간의 인간다운 행복은 자기의 본성이 실현되는 생활에서 찾을수 있다.

사람의 가장 값높은 생활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다.

사람의 자주적인 생활이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것은 사회와 집단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산다는것이며 사회와 집단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산다는것이다.

사람은 사회와 집단의 평등한 성원이 되어 자주적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자주적으로 산다고 할수 있다. 이것을 위하여 사람은 집단생활에서 주인구실을 하여야 한다. 남의 등에 업혀사는 사람은 주인구실을 할수 없기때문에 주인으로 될 자격이 없으며 자주적인 생활을 누려나갈수 없다. 사회와 집단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사람만이 자주적생활의 향유자로 될수 있다.

사람의 창조적인 생활이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기의 창조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것은 사람이 자기의 창조적본성을 발휘하면서 산다는것이며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진보를 이룩하며 산다는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발휘해나갈 때 행복을 맛볼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적재능을 돈에 의하여 룡락당하는 사람이나 무위도식하는 건달군의 생활은 창조적생활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 또한 현실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태도가 없이 구태의연하게 사는것도 창조적생활과는 인연이 없다. 침체를 모르고 비약하는 생활이 사회와 함께 자신의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창조적생활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생활을 하며 《독단과 편견》에서 벗어나 《보편적선》을 추구할데 대한 소크라테

스의 주장은 고대 첫 시기로서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탐구에서는 합리적면을 시사한 것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요인을 사상이 아니라 지식으로 규정하였고 인간다운 참생활을 도덕생활로 봄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인간의 값높은 삶을 이룬다는것을 보지 못하는 결함을 범하였다.

실마리어 소크라테스, 지덕동일, 복덕동일